학이 나는 듯… 팔작지붕으로 전통의 멋 뽐내

윤정수·심재옥씨 부부가 집 앞 돌담길을 산책하고 있다. 상모(모평)마을은 많은 고택과 누각, 안샘 등 전통마을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 함평군 해보면 윤정수·심재옥씨 부부 한옥

윤정수(61)·심재옥(61) 부부가 사는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 상모(모평)마을은 최근에서야 알려지기 시작한 전통 한옥마을이다.

6남 1녀의 남매중 장남인 윤씨는 지난 9월 수십 년간의 서울생활을 접고 할아버지 대부터 살아온 고향 집터 3필지를 합해 한옥을 짓고 낙향했다. 낡고 비좁은 헌 집을 헐고 전남도와 함평군의 지원과 자비 등 1억8천여만원을 들여 단아하면서도 현대식인 한옥으로 새롭게 지었다. 문화재 기능보유자인 윤정우씨가 대목장으로 참여해 공을 들였다.

맞배지붕이 아닌 학이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듯한 전통 팔작지붕을 유지하면서도, 방문은 미닫이와 여닫이로 이중처리해 방한 효과를 높였다. 실내 역시 기둥은 육송, 천장은 편백나무, 문짝은 홍송, 벽면은 황토 흙벽돌로 꼼꼼히 마감해 한옥의 묘미를 살렸다.

문화재 기능보유자가 대목장으로 참여

육송 기둥·편백 천장·벽면은 황토 처리

민박 고려 원룸식 거실에 좌우 방 배치

윤씨는 "공부하고, 사업하느라 수십 년간 광주·서울 등지에서 살다 고향에 돌아오니 잠을 자도 다르더라"고 말했다.

임천산을 배경으로 남향으로 자리잡은 윤씨의 한옥은 대지 1천405㎡(425평)에 건평 104㎡(31.5평) 규모, 민박을 고려한 원룸식 거실을 중심으로 좌우에 방을 배치했으며, 내년에 추가로 83㎡(25평) 정도의 살림집과 손님맞이용으로 팔각정을 만들 요량이다.

널찍한 마당에는 담장을 따라 배롱나무와 조선 향나무, 감나무 등을 심었다. 야생화를 좋아하는 심씨가 내년 봄부터 갖가지 꽃들을 심어 정원을 꾸밀 계획이다.

부인 심씨는 "새벽 3시 50분께에 어김없이 첫 닭이 울면 집집마다 닭, 소 등이 연달아 운다"며 "얼마 전 서울사는 시누이 친구들이 하룻밤을 묵고나서 고풍스런 우리 동네를 '시골의 압구정동'이라고 표현하더라"며 활짝 웃었다.

윤씨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민박을 시작했다. 대문에 남도민박 '소풍가'라는 자그마한 팻말이 걸려있다. 대부분 '소풍가자'라는 의미일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지만 '웃음이(笑) 가득한(豊) 집(家)'이라는 부연설명이다. '이곳에 묵어가는 모든 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윤씨 부부의 인생철학이 오롯이 담겨있는 작명이다.

민박을 하는 도시인들은 고풍스럽고 아늑한 마을 분위기를 음미하고 조릿대와 돌담길 사이로 난 호젓한 오솔길을 산책하며 작은 감동을 느낀다. 특히나 눈이 내리고 안개라도 끼는 날이면 더욱 운치를 더한다.

윤씨 부부는 앞으로 6천612㎡(2천여평) 밭에 웰빙 과일로 부상하는 '블루베리'를 재배할 계획이다. 현재 본격 재배에 앞서 선진농가를 방문하고 책자를 통해 품종의 특성과 재배법 등을 익히고 있다.

윤씨는 "블루베리는 재배에 손이 많이 가지 않고 6·7월에 수확해 '실버농업'으로 제격"이라며 "시골투자는 제값을 못 받는다는 통념이 있지만, 도시인이 자기자본을 가지고 들어와 전원생활을 하면 나이도 젊어지고, 농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대청마루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윤씨 부부.

■ 함평 모평마을은

고택·동헌 터·누각 간직한 '천년고읍'

모평(牟平)마을은 함평군의 근간이 된 '천년고읍'(千年古邑)이다.

현재는 작은 농촌마을에 불과하지만 고려·조선초까지 모평현 소재지였다. 1409년(조선 태종 9년) 함풍현과 모평현을 합치면서 함풍에서 함(咸)자를, 모평에서 평(平)자를 따와 현재의 함평군이 됐으며 올해로 개군(開郡) 600년을 맞았다.

모평마을은 많은 전통 고택과 옛 돌담을 비롯해 동헌터, 누각, 물레방아, 안샘(마을샘·사진) 등 전통마을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전통과 문화, 생태가 어우러진 생태전원마을로 육성하기 위해 상·하모마을을 비롯해 운곡, 원산마을을 아우르는 '상곡권역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모평마을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800여명이 방문했다.

광주에서 찾아가려면 광주~영광 국도 22호선의 해보 교차로에서 빠져 나산면 방향으로 진행하다 쌍구룡정미소에서 우회전하면 된다.

홈페이지(www.mopyeong.com). 민박 문의(061-323-8288)